

# 韓國의 經濟地域

徐 贊 基

《 目 次 》

1. 研究目的	4. 經濟地域의 性格
2. 經濟地域의 概念	5. 經濟地域의 類型
3. 經濟地域의 設定	6. 結 語

## 1. 研究目的

1960年代以後 數次에 걸친 經濟開發은 낡은 價値體系에 依하여 짜여진 國土의 地域構造를 크게 變化시키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새로운 投入으로 經濟事象의 地域差가 緩和 또는 深化되는데 따른 地域變化를 意味한다. 高度經濟일수록 地域間의 經濟的 特化가 促進되므로 地域의 經濟事象의 差는 緩和보다는 深化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一般의이다. 韓國의 經濟空間 역시 새로운 價値體系에 依하여 그 地域構造를 再編成하여 가는 過程에 있으므로 經濟事象의 새로운 地域構造 認識은 큰 意義가 있다. 그러나 農業地域을 비롯한 各種 産業地域의 區分은 若干 試圖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韓國 經濟地域의 設定과 研究가 試圖된 바가 한 件도 없는것은 遺憾이 아닐 수 없다. 물론 1972

- 81年의 國土開發計劃을 위한 開發階域<sup>1)</sup>이 政府에 依하여 設定 公布된바 있고 더우기 그 基礎가 된 Wood와 Norton의 經濟地域<sup>2)</sup> 設定이 現實的으로 매우 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긴 하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經濟開發을 위한 計劃地域(planning region)이지 經濟地域은 아니다. 비록 Perrou<sup>3)</sup>에 依하면 計劃地域도 經濟地域에 包含된다고 하였으나 “計劃地域은 하나의 훌륭한 行政의 方策은 될 수 있을 시연정 하나의 地域의 經濟單位로서 意圖된 것은 아니므로”<sup>4)</sup> 一般的意味(또는 狹意)의 經濟地域은 아니다.

이러한 理由에서 本研究는 (1) 可及의 最近의 韓國의 經濟空間의 實狀을 反映하는 經濟地域을 設定하여 (2) 各 經濟地域의 性格을 究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그러나 關聯資料가 매우 不足하여 처음부터 正確을 期하는 것은 不可能하였으므로 本研究는 單只 하나의 試圖와 問題提起 以上の 意義는 두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 本 研究는 1980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해 이루어짐.

1) 大韓民國 政府, 1971, 國土綜合開發計劃 1972~81.

2) Wood, M.K. and R.D. Norton, 1968, *Economic Regions in Korea*, Seoul. Norton, R.D., 1968, *The Spatial Framework of Development in Korea*

3) Boudeville, J.R., 1951, *Les Espaces Economiques Collection Que Sais-Je? No 950* (山岡存夫 譯 經濟空間, 白水社, 1969, pp. 17~27).

4) McCarty, H.H. & J.B. Lindberg, 1966, *A Preface to Economic Geography*, Prentice Hall, Englewood, N.J., p.97.

## 2. 經濟地域의 概念

Obst 는 經濟地理學의 目標가 다음과 같이 變發展하였다고 하였다.<sup>5)</sup>

(1) 各種의 經濟財의 生産을 統計的으로 取扱하는데 重點을 둔 時期로서 K. Andree (1869 - 1872), E. Friedrich (1904 - 11), K.

Dove (1914)의 著書는 그 例이다.

(2) 文化地理學 全體의 發展에 隨伴하여 經濟와 交通이 한편에서는 自然의 制約을, 다른 한편에서는 人間에 어떻게 依存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가 前面에 抬頭된 時期로서 K. Sapper (1924), S. Passarge (1926), R. Lütgens (1928, 1950, 1952)의 著書는 여기에 該當된다.

(3) 經濟空間(Wirtschaftsraum)이 考察의 前面에 나타나서 經濟空間의 本質을 究明하고 地球의 經濟組織(Wirtschaftsgefüge)의 學問을 展開하려고 한 時期로서 H. Hassinger (1933), E. Otremba (1955, 1957), Th. Kraus 의 著書를 그 例로 들고 있다.

經濟地域의 研究가 經濟地理學의 中心 課題의 하나로 登場한 時期는 前述한 第3期라고 할수있으나 이 問題를 最初로 提起한 學者는 第2期에 屬하는 B. Dietrich 였다. Dietrich 는“經濟地理學은 地球空間과 經濟人과의 交互作用의 學問으로서 그 結果로서의 地球의 經濟形像(Wirtschaftsbild)과 그 組織(Zusammensetzung), 成立(Entstehung) 및 配列(Anordnung)의 點에서 考察하는 學問이다”<sup>6)</sup> 라고 하여 前半은 經濟地理學 方法論으로서의 交互作用論(Wechselwirkungslehre)을, 後半은 研究의 中心課題로서 經濟地理學의 地帶論(Zonenlehre)을 主

張하고 있다. 그는 經濟地帶를 特定財의 生産이나 消費가 集中的으로 分布하는 規模가 比較的 큰 帶狀의 地表空間으로 理解하고 이보다 空間的으로 狹小한 것으로 다시 經濟地域(Wirtschaftsgebiet)과 經濟景域(Wirtschaftslandschaft)이라는 概念을 導入하였다.

이들 經濟景域 經濟地域 經濟地帶가 階層的으로 結合하여 經濟空間의 内部構造를 形成한다고 하였다.<sup>7)</sup> 經濟地域의 概念에 關해서는 Dietrich 以來 여러 學者에 依하여 많이 論議되고 있으나 그중 가장 頻繁히 學論되고 있는 것으로는 經濟空間과 經濟地域의 問題이다. Hettner 에 依하면 經濟地域은 等質의 經濟의 性格을 가지는 地表空間을 意味하고 經濟空間은 不均等하게 相互依存의 經濟關係를 가진 地表空間을 意味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經濟空間의 크기에 따라 都市와 農村, 國民經濟, 世界經濟의 세 가지로 區分된다고 하였다.<sup>8)</sup>

Kraus 는 經濟空間을 經濟組織의 地域的 表現일 뿐만 아니라 地理學의 意味에 있어서의 經濟를 營爲하는 人間이 創出한 Landschaft 의 部分的 統一이며 本質的으로 固定된 限界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對하여 固定的으로 區劃된 것은 經濟地域이라고 하며 國家領域과 같은 經濟政策的인 構成체에 限定시켰다.<sup>9)</sup>

그 외에 黑正 巖<sup>10)</sup>은 經濟地域에 關한 理論의 研究를 詳細히 試圖한 바 있으나 二次大戰까지 經濟地域을 가장 進步的으로 定義한 者는 Dickinson 이라 할수있다. 그는 “經濟地域이란 類似한 利害關係와 組織을 가지고 相互關聯의 活動을 하는 領域으로서 人間과 空間과의 關係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實在이며, 徑路類型과 都市를 通하여 그 機能이 遂行된다.

5) Obst, E., 1961, Allgemeine Wirtschafts-und Verkehrsgeographie, 2 Auflage, Einleitung, pp. 13~14.

6) Dietrich, B. 1927, Grundzüge der Allgemeinen und Wirtschaftsgeographie, Vorwort, p.1.

7) 國松久弥, 1979, 經濟地理學說史, 古今書院, 東京, pp.67~78.

8) Hettner A., 1957, Wirtschaftsgeographie, Bearbeitet Von Ernst Plewe. Allgemeine des Menschen 11. Band, herausgeben Von Heinrich Schmitthenner, SS.110~111.

9) 春日茂男, 1968, “經濟地域論”, 幸田清喜編, 經濟地理學Ⅰ, 朝倉書店, 東京, p.238.

10) 黑正 巖, 1941, 經濟地理學原論, 日本評論社, pp.125~344.

그러므로 經濟地域은 社會的 基礎로서의 人間과 財貨의 移送나 서어비스, 情報, idea 의 配分을 遂行하는 複合的이며 密接히 짜여진 組織을 包括하는데 그 中心에는 核心都市가 있어야하고 緣邊部로 갈수록 더 複合的이며 漸移的 性格을 띠운다”<sup>11)</sup> 라고 하였다.

Dickinson 의 經濟地域의 概念에 관한 卓見에도 不拘하고 二次大戰까지의 經濟地域에 對한 見解는 “經濟現象이 充填된 土地로서의 經濟地域”이라는 Ritter 以來의 傳統的 表現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事實으로서 地人相關의 問題設定이나 土地空間과 經濟人과의 交互作用이라는 問題設定에 있어서는 大體로 經濟地域의 概念과 景觀概念과의 關聯이 깊은 것을 認定할 수 있다. 地理學에 있어서 地域에 對한 생각이 景觀論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은 學史的으로 明白한 것으로서 그 痕跡은 今일에 이르기 까지도 認定할 수가 있다. 이러한 傳統的 基礎위에서는 均等地域으로서의 經濟地域을 생각하는 것이 優勢하였는 것이 當然하나 自給生産體制의 地域이 商品生産의 地域으로 發展함에 따라 均等地域으로서의 經濟地域은 中心市場의 中核을 가진 組織의 地域으로 編成發展되어 간다.<sup>12)</sup>

現代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 이러한 經濟地域의 發展段階를, 經濟地域을 立地複合體 (Standort Komplex)로 規定한 Schmidt - Renner는, 8段階로 表示한 바 있다.<sup>13)</sup> 끝으로 戰後에 있어서 經濟地域의 概念規定을 代表하는 Otremba 의 見解를 보면 經濟地理學의 研究對象으로서의 經濟空間을 地表空間의 自然, 人間, 經濟事象의 統一體로 規定하고 下位의 經濟空間이 모여 보다 上位의 經濟空間을 이루면서 결국 이들 經濟空間의 組織이 地表의 經濟的 空間形像을 形成한다고 하였다. 또 經濟空間을 充填하고 그實體가 되는 諸

要素間에는, 場所의으로 各樣各色이긴 하나, 調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結果의으로 經濟空間內에는 一定의 關聯組織과 作用組織이 形成되고 이 關聯組織 作用組織의 範圍가 하나의 經濟空間을 形成한다고 하였다.<sup>14)</sup>

以上の 極히 限定된 經濟地域의 概念에 관한 考察에서도 (1) 經濟地域은 關聯諸要素가 調和的으로 結合된 複合體이며 統一體로서 (2) 初期의 均等地域으로서의 概念이 機能地域으로서의 經濟地域으로 認識되게 되었으며 (3) 規模를 달리하는 各種 經濟地域이 階層的으로 結合하여 經濟空間의 組織體를 形成하고 (4) 歷史的 發展段階에 따라 몇 段階의 變化發展을 한다는 事實을 認定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외에 (5) 經濟地域은 從來의 分布論的 觀點에서 立地論的 觀點에 立脚한 研究로 移行되었으며 (6) 經濟地域을 經濟計劃地域까지 包含하여, 보다 넓은 概念으로 認識하는 傾向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아직도 막상 經濟地域을 設定함에 있어서는 과연 經濟地域이 무엇인가? 에 對한 明確한 解答이 없는 것도 事實이다.

### 3. 經濟地域의 設定

農業地域과 같은 特定産業地域의 區分과 研究<sup>15)</sup>는 일찍부터 汎世界的으로 活潑히 展開되어 왔으나 經濟地域의 設定은 그것이 世界的 範圍이든 國家의 또는 地方的 規模이든 間에 그 例가 極히 限定되어 있는 것이 注目된다.

그것은 (1) 前述한 것처럼 經濟地域의 概念에 對하여 아직도 明確한 結論이 나오지 않았으며 (2) 要素複合 (element-complex) 的 性格이 顯著한 經濟地域 設定에 必要한 資料가 具備되어 있지 않으며 (3) 二次大戰後에는 意圖的 空間再編

11) Dickinson, R.E., 1938, "The Economic Regions of Germany". *Geogr. Rev.*, pp. 609 ~ 610.

12) 春日茂男, *op. cit.*, pp. 238 ~ 240.

13) Schmidt - Renner, G., 1961, *Elementare Theorie der Ökonomischen Geographie, nebst Abriss der Historischen Ökonomischen Geographie Ein Leitfadens für Lehre und Studierende*, S. 117 ( *ユミツ・レンナ*, 經濟地理學 基礎理論, 古今書院, 1970, p. 160 參照)

14) Otremba, E., 1961, *Wirtschaftsgeographie, Handwörterbuch der Betriebswissenschaft* (國松久弥, *op. cit.*, pp. 93 ~ 94. 參照)

15) 1920年代以後 *Economic Geography*에 連載된 農業地域 區分이 그 例이다.

成手段으로서의 經濟開發計劃地域이 設定되고 또 이것이 널리 弘報되고 있어 現狀把握에 置重하는 一般的 意味의 經濟地域 設定이 別 關心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共產主義 諸國에서는 經濟地域의 設定과 研究가 相當히 活潑한데<sup>16)</sup> 그것은 소련의 경우 經濟地域은 하나의 經濟開發計劃地域인 同時에 곧 狹意의 經濟地域이며 行政區域이나 文化區域이나 文化, 社會地域의 性格도 兼하는 全目的的 領土單位이기 때문이다.<sup>17)</sup>

오늘날 經濟地域이 均等地域으로서가 아니라 機能地域으로 認識되어야 한다는 것은 再論할 必要조차 없다. 그러나 機能的 經濟地域이라고 하여 그 空間組織에 均等地域이 排除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機能地域은 均等地域의 有機的 結合에 依하여 成立이 可能하며 兩者間에는 相互密接한 依存關係에 있다는 것은 이미 Philbrick의 研究<sup>18)</sup>와 Berry의 spatial field theory<sup>19)</sup>에서 밝혀진 바 있다. 本 研究에서도 이러한 立場에서 經濟地域 區分을 試圖하는 것은 勿論이나 實際로 區分指標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資料問題와 함께 經濟地域 設定에 있어 가장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黑正巖는 一般的인 經濟地域 設定方法으로서 (1) 自然的 地域劃定法 (氣候나 植物의 分布狀態에 依함) (2) 文化的 地域劃定法 (文化的 特徵, 文化的 擔當者, 國家領域, 政治形態, 宗教에 依함) (3) 經濟的 地域劃定法 (經濟發達段階, 經濟形態, 食糧獲得 및 消費, 經濟的 指導精神 또는 經濟組織, 人口 및 聚落到 依함)<sup>20)</sup> 을 들고 있는데 初期의 經濟地域 設定의 경우를 除外하면 (3)의 경우가 大部分이고 또 그것이 當然하다.

지금 世界的 規模의 經濟地域 區分에 利用된 指標을 보면 Hahn (1892)<sup>21)</sup> 과 Sapper(1924)<sup>22)</sup> 는 經濟形態(發達段階에 있어서 農業生產 手段), Jones 와 Whittlesey (1925)<sup>23)</sup> 는 氣候, Friedrich (1924)<sup>24)</sup> 의 經濟發達段階, Maul (1932)<sup>25)</sup> 의 氣候, 江澤讓爾(1938)<sup>26)</sup> 의 食糧獲得 및 消費, Boesch (1947)<sup>27)</sup> 는 經濟形態와 經濟發展段階(自給 또는 市場經濟), Otremba (1950)<sup>28)</sup> 는 經濟政策과 經濟構造(產業人口, 人口密度, 工業化) 및 氣候, Woytinsky (1953)<sup>29)</sup> 는 產業構造, Fryer (1958)<sup>30)</sup> 는 1人當 所得, 產業構造, 人口의

16) Harris, C.D., 1959, "Polish Conference of Economic Regions," *Geogr. Rev.*, p.588. 參照.

17) Shabad, T., 1953, "The Soviet Concept of Economic Regionalization," *Geogr. Rev.*, pp.214~215.

18) Philbrick, A. K., 1957, "Principles of Areal Functional Organization in Regional Human Geography," *Econ. Geogr.* Vol. 33, pp.299~336.

19) Berry, B.J.L., 1968, "A Synthesis of Formal and Functional Regions Using General Field Theory of spatial Behavior," Berry, B.J.L. and D.F. Marble ed., *Spatial Analysis*, Prentice Hall, Englewood, N.J., pp.419~428.

20) 黑正巖, *ibid.*, pp. 127~183.

21) Hahn, E., 1892, *Die Wirtschaftsformen der Erde*, *Pet. Geogr. Mitt.* Bd. 38, SS.8~12.

22) Sapper, K., 1924, *Allgemeine Wirtschafts und Verkehrsgeographie*, Leipzig und Berlin.

23) Jones, W.D. and D.S. Whittlesey, 1925, *An Introduction to Economic Geography*, Vol.1, Natural Environment as Related to Economic Life, Chicago.

24) Friedrich, E., 1926, *Wirtschaftsgeographie* 3, Aufl. Bd.1.

25) Maul, O., 1932, *Geographie der kultur landschaft Sammlung Götschen* 1055, Leipzig und Berlin.

26) 江澤讓爾 1938, *經濟地理學의基礎理論*, 南郊社, 東京, pp.136~191.

27) Boesch, H., 1947, *Die Wirtschaftslandschaft der Erde*, Zurich.

28) Otremba, E., 1949/50, *Die Wirtschaftsgeographischer Ordnung der Länder*, Erde 1, SS. 216~232.

29) Woytinsky, W.S. and E.S. Woytinsky, 1953, *World Population and Production*, New York, pp.415~439.

30) Fryer, D.W., 1958, "World Income and Types of Economics, The Pattern of World Economic Development," *Econ Geogr.*, Vol.34, pp.284~303.

年令別構成, 人口分布, 經濟成長率, Boesch (1964)<sup>31)</sup>는 一般의 原則으로서 Ökumene 와 Anökumene 를 區別한 後 Okumene 內에서의 土地利用型을 區分하여 다시 經濟發展度를 考慮한다고 하였고 實際適用에 있어서는 貿易圈의 設定, 機能構造로서의 輸出主宗品の 比率, 機能의 intensity 로서의 1人當 貿易額에 依하여 世界의 貿易地域을 設定하므로써 經濟地域으로 代身하였다.

한편 國家의 또는 地方的 規模를 對象으로한 經濟地域 區分의 例로 보면 Wolfanger (1926)<sup>32)</sup>는 自然條件을, Schew<sup>33)</sup>는 商品의 交易, Weitzl<sup>34)</sup>은 產業, 地理的 連接性, 社會的 構造와 文化的 統一性, 中心都市의 影響圈을 考慮하였다. 또 Snodgrass (1943)<sup>35)</sup>는 人口分布와 直接關聯이 있는 產業特化度를, Karan (1953)<sup>36)</sup>은 自然條件, 資源, 經濟發展度, 人文活動을 指標로 삼았다.

以上の 例에서 1930年을 前後한 初期의 經濟地域 區分을 例外로 하고는 經濟地域 區分은 經濟的 要素에 依하여 區分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왔고 그중에서도 經濟構造나 經濟形態를 反映하는 產業構造와, 機能地域의 範圍劃定을 爲한 商圈, 貿易圈, 都市勢力圈 등이 指標로서 重要視되었다. 그러나 韓國의 經濟地域 設定에 있어서도 이보다도 먼저 考慮해야 할 問題가 있는데 地域階層問題가 그것이다.

(1) 面積이 狹小하고 交通이 比較的 發達한 國

土空間과, 서울이 방대한 經濟力을 가지고 全國의 經濟中樞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全國이 서울의 經濟勢力 圈에 들어가기 때문에 全國은 서울을 中心都市로 하는 하나의 經濟圈을 形成하고 있다. 이런 點에서 서울은 韓國 經濟地域의 最高次中心地 卽 經濟極 (economic pole)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 經濟極의 下部構造로서 다시 서울과 釜山의 二大經濟圈을 考慮 할 수 있다.<sup>37)</sup>現在로서는 이들 兩巨大都市가 가지는 全國的 範圍의 經濟勢力에 比肩되는 다른 都市나 經濟中心地가 없으므로 經濟大圈은 서울大圈과 釜山大圈으로 區分하는 것이 妥當하다. 均等地域으로서의 經濟地域 設定이라면 湖南經濟地域을 서울과 釜山の 그것에 對等한 經濟地域으로서 設定할만한 意義가 있으나 機能地域으로서의 經濟大圈으로 看做하기에는 光州의 經濟勢力이 너무나 微弱하다. 또 大邱는 釜山과 近距離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都市勢力圈이 大體로 慶北一圓에 局限되어 있어<sup>38)</sup>經濟大圈의 中心地로서는 不適當하다. 한편 서울大圈과 釜山大圈의 境界劃定에 있어서는 아직 全國을 對象으로 한 交通圈, 商圈, 綜合的 都市勢力圈 등에 關한 體係의 研究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breaking-point model<sup>39)</sup>과 鐵道交通圈에<sup>40)</sup> 依하면 全南과 全北의 南半部는 서울圈도 釜山圈도 아니고 오히려 兩大圈의 漸移地帶의 性格을 띠우고 있다. 물론 人的 物的 交流를 보면 絕對的으로는 釜山보다 서울과 interaction이 더

31) Boesch, H., 1964, *Geography of World Economy*, Van Nostrand Co., New York, pp. 240 ~ 243.

32) Wolfanger, L. A. 1926, "Economic Regions of Alaska," *Econ Geogr.* Vol. 2, pp. 508 ~ 536.

33) Dickinson, R. E., 1938, *op. cit.*, p. 618, pp. 609 ~ 626.

34) *Ibid.*, p. 619.

35) Snodgrass, C. P. 1943, "Map of Economic Regions of Scotland" *Scott. Geogr. Mag.*, Vol. 59, pp. 15 ~ 18.

36) Karan, p. p., 1953, "Economic Regions of Chota Nagpur, Bihar, India," *Econ Geogr.*, Vol. 29, pp. 216 ~ 250.

37) Norton, R. D., 1968, *op. cit.*, p. 7.

38) 洪慶姬, 1979, 韓國都市研究,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 同窓會, 大邱, pp. 259 ~ 352, 參照.

39) Alexancler, J. W., 1963, *Economic Geograph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 625.

40) 洪慶姬, 韓柱成, 1979, "鐵道旅客交通의 地域構造에 關한 研究" 慶北大學校 論文集, Vol. 27, pp. 113 ~ 130.

큰 것은 事實이나 이러한 傾向은 이 地域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釜山大圈內에서도 認定할수 있다. 그러므로 兩大圈中의 어느圈에 이 地域 特別히 全南地方을 包含시키느냐 하는 問題는 相對的 interaction의 크기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最近의 南海高速道路의 開通과 東

西高速道路의 計劃은 全南과 嶺南의 交流를 劃期的으로 促進할 것이므로 釜山大圈은 嶺南과 全南을 包含하고 餘他地方을 서울大圈에 包含시키는 經濟空間의 二分化를 可能케 하고 있다. 이런 點에서 Norton의 二大開發圈은 비록 期待的 區分<sup>41)</sup>이긴 하나, 10餘年이 經過한 現在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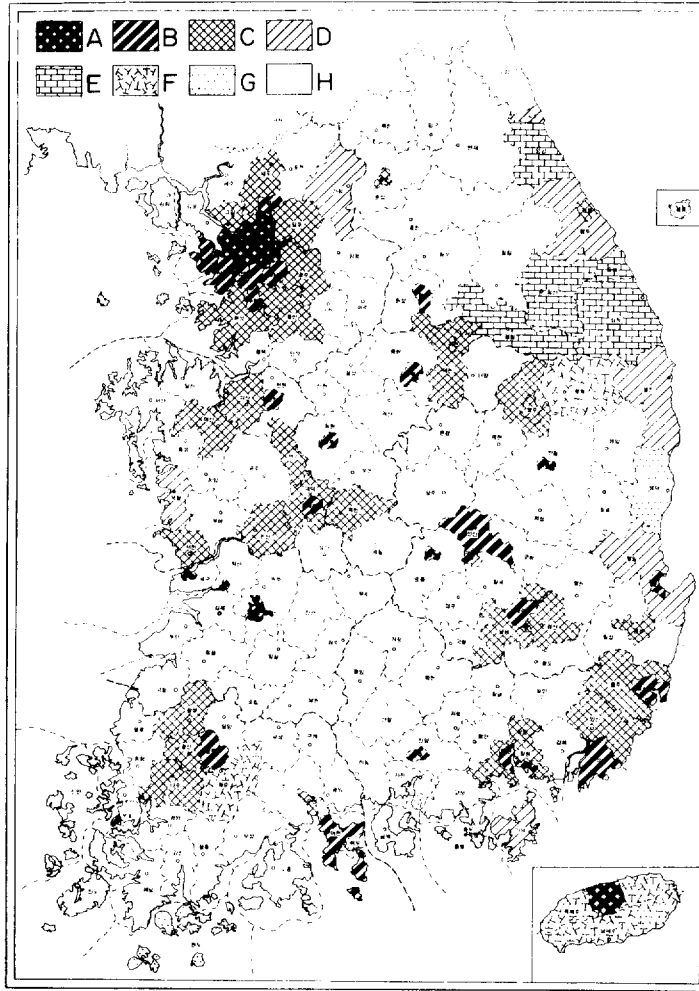


그림 1. 市郡의 代表産業

- |                |             |
|----------------|-------------|
| A : 서어비스業      | E : 鑛業持化    |
| B : 工業 및 서어비스業 | F : 農·서어비스業 |
| C : 農·工·서어비스業  | G : 漁業持化    |
| D : 複合型        | H : 農業      |

41) Norton, R.D., *op. cit.*, p.9.

相當한 現實의 意義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以上과 같은 두 經濟大圈內에서의 經濟地域의 細分은 市郡別 產業構造와 그 配置狀況에 依하였는데 地域의 產業構造는 地域總生産額(G.R.P)과 그 產業別 構成比에 依하였다. 卽 同資料로서는 最近年の 것에 該當하고 1976年 現在의 市郡別 產業別 生産額資料<sup>42)</sup>에서 幸田의 作物結合法<sup>43)</sup>을 適用시켜 各市郡의 代表産業을 抽出하고 이 結果를 地圖上에 表示하면 그림 1과 같이 特定都市를 中核으로 그 周邊地域에 地域의 代表産業이 一定한 秩序를 가지고 地域에 따라 變化하고 있음을 認定할 수 있다. 一般적으로 서어비스業 또는 서어비스와 工業으로 代表되는 中心都市의 周邊에는 農·工·서어비스業으로 代表되는 地域이 展開되어 있는데 이 地域들은 平均的 意味의 全國의 代表産業構成과 一致하므로 標準産業地域으로 呼稱키로 한다. 다시 이 標準産業地域의 外部에는 純粹農業地域이 分布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中心都市에서 周邊農業地域으로 갈수록 土地利用은 集約的 利用에서 粗放的 利用으로 移行하고 全産業의 空間生産力을 表示하는 經濟密度(地域總生産額/地域의 面積)는 高密度에서 低密度로 變化한다.

이와같이 3~4種의 經濟機能을 달리하는 地域이 相互結合하여 하나의 獨立的인 地域單位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이 最小單位의 機能的 經濟地域 즉 經濟小圈을 形成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서울, 忠州, 天安, 大田, 光州, 大邱, 釜山 周邊에 形成된 7個의 地域單位가 바로 그것이며 麗順地域도 여기에 準한 地域으로 볼 수 있으므로 總 8個의 經濟小圈을 認定할 수 있다.<sup>44)</sup> 또 이러한 3~4種의 機能地域 構造로까지는 發達치 못하였으나 比較的 넓은 範圍에 걸친 農業地域(또는 鑛業地域)과 그 서어비스 中心地에서

의 大·中都市가 結合하여 하나의 地域單位에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春川, 江陵, 清州, 全州, 安東, 普州, 濟州를 各各 中心地로 하는 8個 農業地域(또는 鑛業地域)이 그것인데 이들 역시 經濟小圈으로 看做할 수 있다.

以上の 16個 經濟小圈은 韓國의 經濟空間의 下部構造를 이루는 地域單位로서 Norton의 18個 intermediate region<sup>45)</sup>과 對比된다. 또 이들 經濟小圈間의 境界劃定 역시 確實한 根據에 依하여 劃定하기는 困難하였으나, 交通·通信을 基準으로 區分된 Norton의 intermediate region의 境界와 洪慶姬 教授가 設定한 都市勢力圈<sup>46)</sup>을 參酌하면서 設定하였다. 아울러 큰 歪曲이 없는 範圍內에서 可及的 道界를 境界로서 重視하였고 原則적으로 飛地를 認定하지 아니하였다.<sup>47)</sup>

이렇게하여 設定된 經濟大圈과 經濟小圈間의 不一致地域을 調整한 後에 各 大圈內에 屬한 小圈들을 地域構造가 高度화된 關聯大都市 中心으로 統合하여 6個의 經濟中圈을 設定하였다. 結局 地域別 產業別 生産額 構造에 依하여 設定된 우리나라의 經濟地域은 表 1 및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 經濟極을 頂點으로 2大圈 6中圈 16小圈으로 된 4段階의 階層構造를 이루고 있다. 經濟大圈이 日常經濟 生活圈이라면 經濟中圈은 產業經濟圈, 經濟大圈은 綜合經濟圈으로 看做할 수 있다.

## 4. 經濟地域의 性格

### (1) 서울大圈

서울을 비롯하여 京畿 江原 忠南北 및 全北(南

42) 韓國科學技術研究所 附設 地域開發研究所, 1980, 地域生産豫測模型의 開發과 適用에 關한 研究, 서울, pp.132~154.

43) 幸田清喜, 1966, "日本工業 分化의 地域的 類型" 東京教育大學, 地理學教室 研究報告, X, pp.17~55.

44) 群山, 馬山, 鎭海, 蔚山 周邊에도 이러한 地域構造를 認定할 수 있으나 그 規模가 너무 작거나 母市와의 距離가 너무 가까운 獨立된 經濟圈으로 看做할 수 없다.

45) Norton R.D., *ibid.*, Appendix, pp.1~2.

46) 洪慶姬, *loc. cit.*

47) 飛地를 認定한 경우는 鬱陵島를 大邱小圈에 包含시킨 경우 뿐이다.

표 1. 經濟地域의 階層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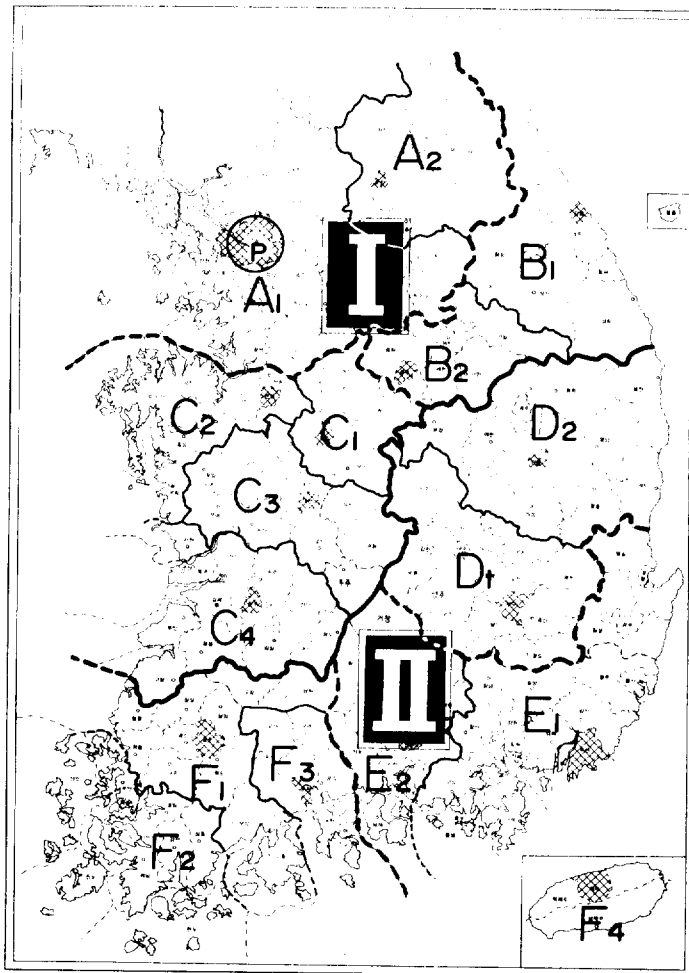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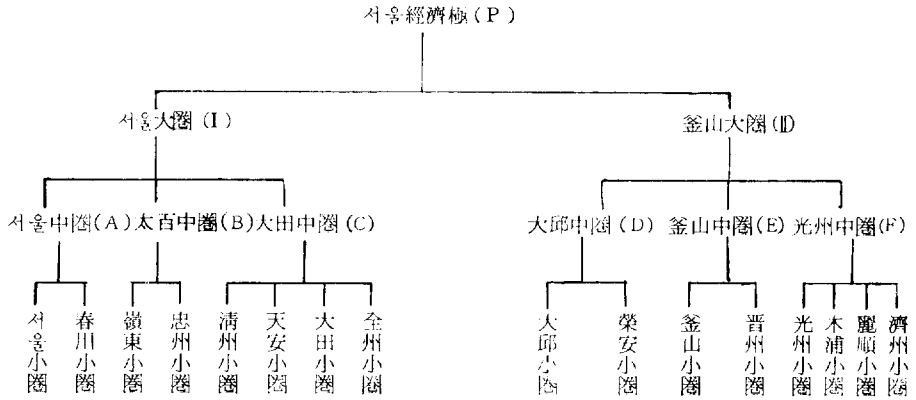


그림 2. 韓國의 經濟地域(記號는 표 1 參照)



原과 淳昌郡 除外)에 걸치는 서울大圈은 面積, 人口, 耕地面積과 農業, 漁業, 工業의 比重이 釜山大圈보다 若干커서 地域總生産力, 經濟密度, 住民生産力 等의 生産力이 多小 優勢하나 顯格한 經濟力의 差異는 없다. 다만 서어비스業과 鑛業에 있어서는 그 生産力이 釜山圈에 比하여 卓越하게 높은 것이 特色인데 이것은 서울의 서어비스業과 太白地域의 鑛業特化가 顯著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大圈의 釜山大圈에 對한 地域性은 서울의 存在와 太白地域의 地下資源의 賦存에 依하여 形成된 것이라 할수 있다.

1) 서울中圈

서울을 비롯하여 京畿道 全域과 江原道の 嶺西地方을 包含하는 서울中圈은 全國土面積의 1/3 人口의 1/3, 國民總生産額의 4割을 占하는 우리나라 經濟의 中樞地域이다. 서울中圈은 다시 서울小圈과 春川小圈으로 區分되는데 그중 서울小圈은 서울 및 京畿道 全域과 江原道の 一部를 占有하여 事實上 서울中圈의 大部分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全國 16個 小圈中에서 가장 規模가 크다. 이와같은 큰 規模는 圈核으로서 서울의 經濟機能이 방대하고 방대 이 核을 中心으로 交通網이 잘 發達되어 있어서 서울의 勢力이 廣範圍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面積規模 以上으로 重要的 事實은 本小圈이 占有面積에 比하여 人口 및 經濟力의 集中이 더욱 顯

표 2. 經濟地域의 比較

經濟地域	面積	人口	地域總生産	農業	漁業	鑛業	製造業	서어비스業	經濟密度	1人當 GRP
서울大圈	52.2%	56.1%	59.5%	50.1%	53.9%	74.4%	45.9%	66.9%	130.5 백만원	345,486 원
서울中圈	21.0	33.8	41.7	17.0	39.7	10.0	44.9	52.4	226.7	400,305
서울小圈	14.6	32.5	41.3	15.7	39.7	9.9	44.7	52.3	323.5	412,664
春川小圈	6.4	1.3	0.4	1.3		0.1	0.2	0.1	7.5	102,004
太白中圈	10.5	4.4	4.6	4.2	5.5	57.7	2.2	4.6	50.1	339,057
嶺東小圈	6.7	2.7	2.5	1.8	5.5	41.6	0.8	2.6	43.1	307,764
忠州小圈	3.8	1.7	2.1	2.4		16.1	1.4	2.0	62.6	387,225
大田中圈	20.7	17.9	13.2	28.9	8.7	6.7	7.8	9.9	73.6	242,673
淸州小圈	3.5	2.4	1.9	4.4		0.4	1.4	1.2	63.6	265,396
天安小圈	4.3	3.7	2.4	7.3	4.9	4.2	0.8	1.1	64.7	215,280
大田小圈	6.3	5.3	3.9	7.0	0.3	0.7	2.9	3.3	71.2	242,830
全州小圈	6.6	6.5	5.0	10.2	3.5	1.4	2.7	4.3	86.8	249,738
釜山大圈	47.8	43.9	40.5	49.9	46.0	25.6	45.1	33.1	96.3	298,589
大邱中圈	17.6	12.2	8.9	14.2	4.1	16.0	7.9	7.1	58.1	238,651
大邱小圈	8.0	8.2	6.6	8.3	0.9	3.3	7.1	6.0	94.4	264,223
榮安小圈	9.6	4.0	2.3	5.9	3.2	12.7	0.8	1.1	27.7	186,927
釜山中圈	14.9	18.3	21.5	15.5	28.4	4.0	31.5	18.4	164.6	381,948
釜山小圈	8.9	14.8	19.8	9.8	24.5	3.5	30.9	18.1	254.4	436,805
晋州小圈	6.0	3.5	1.7	5.7	3.9	0.5	0.6	0.3	31.4	152,213
光州中圈	15.3	13.4	10.1	20.2	13.6	5.6	5.7	7.6	73.7	239,619
光州小圈	6.4	6.3	3.8	9.0	1.1	2.6	1.9	2.4	66.8	192,132
木浦小圈	4.3	3.7	2.0	6.3	7.5	2.9	0.4	0.6	52.4	174,212
麗順小圈	2.8	2.2	3.4	2.9	4.3	0.1	3.3	3.7	131.8	484,828
濟州小圈	1.8	1.2	0.9	2.0	0.7		0.1	0.9	57.7	255,092
全國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24,877
	98,806.89 km <sup>2</sup>	34,707,001 人	1,275,510	2,334,080	239,470	151,700	176,640	5,244,470	114.1	

표 3. 經濟地域의 成長率 (1976/1968)

經濟地域	G R P	農 業	漁 業	鑛 業	製造業	서어비스업
서울大圈	2.15	1.45	5.31	1.62	3.82	2.05
서울中圈	2.44	1.57	7.13	2.26	4.26	2.12
서울小圈	2.46	1.58	7.13	2.39	4.28	2.12
春川小圈	1.44	1.41		0.19	1.81	1.55
太白中圈	1.77	1.43	2.13	1.63	3.01	1.79
嶺東小圈	1.64	1.39	2.13	1.55	2.33	1.64
忠州小圈	1.95	1.47		1.88	3.55	2.03
大田中圈	1.65	1.39	4.33	1.13	2.51	1.84
清州小圈	1.79	1.62		1.04	2.70	1.72
天安小圈	1.67	1.41	5.88	1.04	6.68	2.41
大田小圈	1.55	1.28	2.77	1.76	2.21	1.69
全州小圈	1.68	1.37	3.26	1.26	2.33	1.91
釜山大圈	2.20	1.50	2.79	1.80	4.45	2.07
大邱中圈	1.80	1.40	5.07	2.35	3.89	1.66
大邱小圈	1.98	1.36	8.02	12.68	4.06	1.87
榮安小圈	1.41	1.45	4.57	1.94	2.18	1.06
釜山中圈	2.51	1.34	3.60	1.37	4.47	2.24
釜山小圈	2.65	1.30	3.55	1.56	4.47	2.26
晉州小圈	1.56	1.42	3.92	0.77	4.41	1.41
光州中圈	2.06	1.74	1.74	1.25	5.40	2.15
光州小圈	1.74	1.76	1.16	1.59	3.43	1.40
木浦小圈	1.29	1.80	1.32	1.11	1.62	0.58
麗順小圈	5.94	1.78	5.00	2.13	27.86	11.56
濟州小圈	1.68	1.44	1.87	0.00	0.96	2.14
全國平均	2.17	1.47	3.75	1.67	4.08	2.06

資料: 韓國科學技術研究所 附設 地域開發研究所(1980), 地域生産豫測模型的 開發과 適用에 關한 研究 附表 1-1(1968年) 및 1-5(1976年)에서 算出.

著하고 특히 서어비스業과 工業의 集中現象이 뚜렷한 都市經濟地域이라는 事實이다.

이때문에 그 經濟密度가 表示하듯 地域의 平均空間生産力도 全國平均値의 無慮 3배에 이르고 住民生産性(住民 1人當 平均生産額)이 越等이 높은 全國 第一의 高度經濟地域을 形成하고 있다.

서울大圈의 방대한 經濟力은 單只 서울小圈이라는 狹少한 經濟地域內에서 形成된 것이 아니라 本地域이 全國의 經濟中樞地域으로서 全國을 물론 世界的 範圍의 勢力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된 것이다. 이러한 高度經濟力을 反映하여 서어비스業이 高度로 特化된 서울을 中心으로 그 周

邊部에는 서어비스 및 工業으로 代表되는 都市型產業地域이, 다시 그 周邊에는 漸移地帶로서의 標準產業地域이, 外緣部에는 純農業地域(또는 漁業地域)이 네 겹의 同心圓狀地帶로 展開되어 地域의 集約度變化가 規則的으로 認定될 뿐만 아니라 서어비스業의 高度特化地域을 비롯한 都市型產業地域, 標準產業地域과 같은 高度產業化地域이 全市郡部の 半을 占할 程度로 全國에서 가장 高度의 地域構造가 發達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다 또한 지난 8年間(1968-76)의 서울小圈의 經濟力 成長率이 全分野에 걸쳐 全國의 平均成長率을 若干 上廻한 程度로 比較的 活氣가 있으며 漁業의 成長은 특히 높다.

한편 春州小圈은 春川市를 中心으로 周邊 5 個 郡이 結合하여 形成된 하나의 生活經濟圈으로서 農業과 林業이 全生産力의 半을 占하는 農林經濟地域이다. 卓越한 山岳地勢는 이 地域의 經濟力이 絶對적으로나 相對적으로 全國에서 가장 零細하고 成長이 停滯된 經濟地域으로 만들었으며 結果적으로 그 經濟密度에서 짐작하듯 土地利用도 全國에서 가장 粗放的이고 住民生産力도 가장 낮다.

## 2) 太白中圈

江原道 南部와 嶺東地方 및 忠北의 一部로된 太白中圈은 6 個 中圈中에서 人口, 農業, 工業, 서어서비스業의 域位가 가장 낮아 그 經濟力이 全國의 5%에도 未及할 程度로 微弱한 것이 特色이다. 따라서 經濟密度가 나타내듯이 그 空間生産力은 매우 낮으나 住民生産力은 서울과 釜山中圈 다음으로 높은 것이 注目되는데 이것은 本地域이 全國 鑛業生産額의 57.6%를 占하는 鑛業經濟地域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太白中圈의 特有한 地理的 條件 卽 資源의 制約과 寡少한 人口, 山岳地形 및 그로 因한 交通路 未備 等の 障礙要因으로 지난 8年 間에 있어서 이 經濟地域의 經濟成長은 別로 活潑하지는 못 하였다.

太白中圈은 다시 中心都市와의 關係에 依해서 嶺東小圈과 忠州小圈으로 區分할수 있는데 嶺東小圈은 高城에서 三陟에 이르는 東海岸의 2市 4郡에 平昌과 旌善郡을 合한 地域範圍로서 太白中圈中에서도 典型的인 鑛業地域에 該當한다. 本小圈만으로 全國鑛業地生産額의 約4割을 占할 뿐만 아니라 本小圈 總生産額의 22%(全國平均 1.3%)를 鑛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鑛業의 高度特化和 漁業의 發達 및 大都市와의 不便한 交通關係 等を 理由로 本地域이 大都市 經濟地域과는 距離가 멀면서도 서어서비스業이 16 個 小圈중 3位로 異常肥大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이와같이 鑛業에의 高度集中과 漁業 및 서어서비스業의 發達이라는 特殊한 生産構造는 本小圈의 地域構造를 그림 1에서와 같이 特異하게 展開시키고 있으며 그 經濟密度는 空間生産力이 매우 낮은 것을 示唆하

고 있다.

한편 忠州小圈은 忠州市를 비롯한 中原, 堤川, 丹陽, 寧越의 5 個 市郡으로 된 經濟地域으로서 人口에 比하여 그 經濟力이 낮다. 本小圈 역시 全國에서 嶺東小圈 다음으로 鑛業이 盛하나, 그림 1에서의 多様한 地域構造가 示唆하듯, 工業과 서어서비스業도 都市化가 되지 못한 地域치고는 相當한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要는 本小圈은 忠川의 中心地的 機能, 堤川의 交通機能, 丹陽의 工業機能, 丹陽과 寧越의 地下資源, 中原의 農産資源이 結合되어 形成된 小規模의 複合經濟地域이라 할 수 있다.

## 3) 大田中圈

忠南全域과 忠州小圈을 除外한 忠北 및 全北의 大部分으로 構成된 大田中圈은 서울의 肥大化와 交通의 發達에 따라 首都圈의 農業基地로서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음은 물론 最近에는 大都市를 中心으로 工業化가 進行되고 있는 經濟地域이다. 그러나 아직도 本經濟地域의 基本的 性格은 農業에 있으며 湖西平野 禮唐平野, 美湖平野 湖南平野 등의 廣大한 平野를 거느린 大田中圈의 耕地面積과 農業生産額은 全國 第1位(30%)를 占한다. 이러한 性格을 反映하여 그 成長率은 中圈中에서 가장 微微한 것도 事實이다. 大田中圈은 다시 中心都市와의 關係에 依하여 大田小圈, 天安小圈, 淸州小圈으로 區分된다.

大田小圈은 大田市를 中心으로 忠南의 8 個 郡과 忠北의 沃川, 永同郡, 全北의 茂州郡을 包含하는 地域으로서 農·工·서어서비스業이 均衡있게 차여진 것이 特色이다. 이 때문에 그 產業別 生産構造가 16 個 小圈의 그것의 平均値에 가장 近似하므로 大田小圈은 우리나라의 標準經濟地域이라고 할수 있다. 地域構造도 標準經濟地域의 性格을 잘 反映하여 圈狀構造를 示顯하고 있다. 그러나 空間生産力이나 住民生産力이 比較的 낮고 그 成長率이 微微하다.

天安小圈은 天安市를 核으로 하여 忠南北部地方의 1市 7郡으로서 長項線이 本地域의 經濟活動軸을 이루고 있다. 本地域은 그 生産力의 約 60%를 農業이 占하는 農業經濟地域으로서 最

近에는 園藝農業도 發達하고 있으며 그外 漁業도 盛하나 地域의 經濟 成長率은 낮은 便이다. 또 首都圈과의 近距離 位置가 最近에 工業化를 促進하는 契機가 되어 지난 8年間の 工業成長率은 16大圈中 2位로 높았다. 다만 地域全體로서의 總生産力이나 空間 및 住民生産力은 낮은 便이다.

1市 5郡으로된 淸州小圈은 원래 農業地域으로서 淸州市를 中心으로 하나의 生活經濟圈을 形成하고 있었던 地域으로서 그 總生産力의 比重이나 空間生産力은 낮으나 最近 서울과의 交通이 便利해 짐에 따라 農工業經濟地域으로 發展中에 있다.

全州小圈은 南原과 淳昌 및 茂州郡을 除外한 全北과 여기에 忠南의 舒川郡을 合한 地域인데 道規模의 地域으로서 中圈이 形成되지 않고 있는 것은 全北과 濟州道 뿐이다. 또한 全州小圈의 人口規模도 決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全北의 세 重要都市가 比較的 近距離에 分布하고 있으면서도 高度産業化地域의 形成이 微微하고 단지 農業地域과 그 서어비스中心地로 된 單調한 地域構造를 示顯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이 때문에 本小圈은 農·서어비스經濟地域으로 規定시킬 수 있는데 農業이 卓越한 經濟地域치고는 空間 및 住民生産力은 높은 便이다. 이것은 最近에 있어서 舒川-群山-裡里-全州에 걸친 高度産業化地域의 形成이 進行中인 것과 關聯이 있다.

## (2) 釜山大圈

釜山大圈은 嶺南地方과 全南 및 濟州島를 包含하는 釜山の 勢力圈으로서 面積, 人口, 農業, 工業 漁業 등의 比重이 서울大圈 보다 若干 작기는 하나 그와 比肩할 수 있는 綜合經濟地域이다. 또 空間 및 住民生産力이나 서어비스業 및 鑛業에 있어서는 서울大圈에 比하여 相當이 낮은 地位를 占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漁業을 除外하면 지난 8年間の 經濟成長은 서울大圈의 그것을 앞서고 있다.

### 1) 大邱中圈

大邱中圈은 浦項과 慶州市 및 迎日과 月城郡을 除外한 慶北全域을 意味한다. 嚴密한 意味에서 上記 2市 2郡은 大邱와 釜山勢力圈의 重疊地域으로서 漸移地帶의 性格이 強하나 最近에 올수록 釜山과의 經濟的 關係가 強化되고 있어 釜山圈에 包含시키는 것이 妥當하다. 大邱中圈의 中心部를 이루는 大邱小圈은 洛東江 流域의 2市 12個 郡을 包括한다. 本小圈이 洛東江 流域의 平野地帶에 該當하는 만큼 傳統的으로 農業地域으로서의 基盤도 確固하나 金泉-龜尾-大邱-慶山의 經濟活動軸에 따른 工業의 發達은 本大圈의 經濟基盤을 工業과 서어비스業에 둔 高度經濟地域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이나 釜山小圈에 比하여 工業이나 서어비스業을 비롯한 經濟力과 空間 및 住民生産力이 낮아 都市經濟地域의 次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榮安小圈은 安東市를 中心으로 하는 慶北의 內陸地方으로서 그 經濟力이나 空間生産力(經濟密度)이나 住民生産力이 全國의 低로 낮은 農業經濟地域으로서 지난 8年間の 經濟成長率도 全國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聞慶, 奉化, 蔚珍, 盈德等 本小圈의 周邊地域은 鑛業이나 漁業 등의 農外産業이 特化되어 있는 點이 純粹農業經濟地域과는 다른 點이다.

### 2) 釜山中圈

釜山市와 慶南全域 外에 慶北의 南東部를 包含하고 있는 釜山中圈은 서울中圈에 이어 두번째의 經濟力을 誇示하는 經濟地域으로서 그 總經濟力의 成長은 6中圈中에서 가장 顯著하다. 이러한 釜山中圈의 典型的 性格은 全國 經濟力의 20%를 占하는 釜山小圈에서 찾아 볼수 있는데 西部 慶南을 除外한 餘他的 釜山中圈이 여기에 屬한다. 釜山을 비롯한 蔚山, 馬山, 嶺海, 浦項의 都市型 産業地域과 梁山, 蔚州, 昌原, 慶州의 標準産業地域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高度産業地域의 發達이 서울小圈 다음으로 顯著하다. 또 이것을 反映하여 全國 工業生産額의 30%와 서어비스業의 近20%를 차지하며, 그 經濟密度와 住民1人當 生産額이 示唆하는 바와 같이 産業의 空間 및 住民生産力도 全國의 高로 높아 서울小圈과 함께 우

리나라의 代表的인 高度經濟地域인 同時에 都市經濟地域을 形成한다. 그외에 東海와 南海의 漁場을 끼고 있어 漁業도 相當이 發達하고 있으며 浦項—蔚山—釜山—昌原—馬山에 이르는 海岸工業地帶가 이 經濟地域의 經濟活動軸이다.

한편 慶南西部의 2市 9郡으로 構成된 晉州小圈은 小白山脈의 東斜面에 展開된 山間農業地域이 晉州市를 中心地로 하여 傳統的으로 하나의 生活經濟圈을 形成한 것이며 海岸에는 漁業이 盛하나 春川, 榮安小圈과 아울러 全國의 總經濟力을 비롯한 空間生産力이나 住民生産力 등의 各種生産力이 微弱하고 그 開發도 低調한 農業經濟地域이다. 3小圈 共히 山間地方이라는 點에 注目할 만한 意義가 있다.

### 3) 光州中圈

光州中圈은 濟州小圈을 別途로 하더라도 光州, 木浦, 麗順의 3小圈으로 區分되는데 그 面積規模에 比하여 小圈의 數가 많은 것이 特色이다. 이것은 大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全南의 中心地로서의 光州의 勢力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또 光州에서 全南의 各地方에의 交通이 便利하지 못한데에 基因한다.

光州小圈은 그림 1에서와 같이 湖南에서는 唯一하게 光州를 中心으로 比較的 뚜렷한 高度産業化地域을 形成하고 있으나 그 生産力構造는 아직도 農業이 그半을 占할 程度로 傳統的 農業經濟地域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光州를 中心으로 工業과 서어비스業이 若干 發達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總經濟力의 比重이나 空間生産力 住民生産力等 各種生産力이 微弱하고 成長率도 높지 못하다.

木浦小圈은 傳統的으로 光州와의 交通이 不便한 全南西南部의 海岸地方과 島嶼地方이 木浦市를 中心地로 形成한 農漁業經濟地域으로서 各種生産力이 微弱하고 成長率도 낮다.

또 麗順小圈은 비록 2市 5郡으로된 좁은 面積과 巨大都市가 없는 經濟地域이지만 麗川의 石油化學工業과 이것을 支援하는 서어비스業의 發達에 依하여 우리나라의 4個 高度經濟地域의 하나로 發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空間生産力

과 住民生産力이 매우 높다. 또한 本經濟地域의 形成이 最近의 比較的 短期間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난 8年間の 經濟成長이 地域總生産에서는 全國平均의 4倍, 工業은 32倍, 서어비스業은 13倍에 이를 만큼 急成長하는 工業經濟地域으로서 特徵지을 수 있다.

끝으로 서어비스業을 代表産業으로 하는 濟州市를 中心地로 하고 農業과 서어비스業이 特화된 南·北 濟州郡으로 構成된 濟州小圈은 그 規模는 작으나 그 特有한 地理的條件으로 보아 柑橘栽培과 觀光 서어비스業을 中心으로 하는 農·서어비스 經濟地域으로 設定할 만한 價値가 있다.

## 5. 經濟地域의 類型

經濟地域의 性格은 前節에서 概略의으로 考察된 바 있으나 이것을 보다 明白히 하기 위해서 重要한 몇 가지 指標을 골라 그 相互關係를 살피고 類型化하면 다음과 같다.

### (1) 産業構造로 본 經濟地域의 類型

그림 3의 三角圖表에서 各經濟地域의 産業構造가 多樣하게 展開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특히 中圈보다는 小圈經濟地域間의 分散度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中圈經濟地域이 小圈經濟地域보다 産業構造가 高次的인 傾向을 認定할 수 있다. 따라서 1.2.3次産業이 比較的 均衡을 取하고 있는 大邱中圈과 大田小圈을 基準으로 할 때, 보다 高次的 産業構造를 가진 左上部에는 3個의 中圈과 6個의 小圈이 分布하는데 대하여 보다 低次的 産業構造를 示顯하는 右下部에는 2個의 中圈과 9個의 小圈이 있는데 이것을 類型化하면 다음과 같다.

1) 低次農業經濟地域: 1次産業이 卓越(60%以上)한 經濟地域으로서 晉州, 木浦, 春川, 天安, 榮安의 5個小圈이 여기에 該當된다.

2) 高次農業經濟地域: 1次産業이 中心을 이루기는 하나 3次産業의 比重도 比較的 큰 農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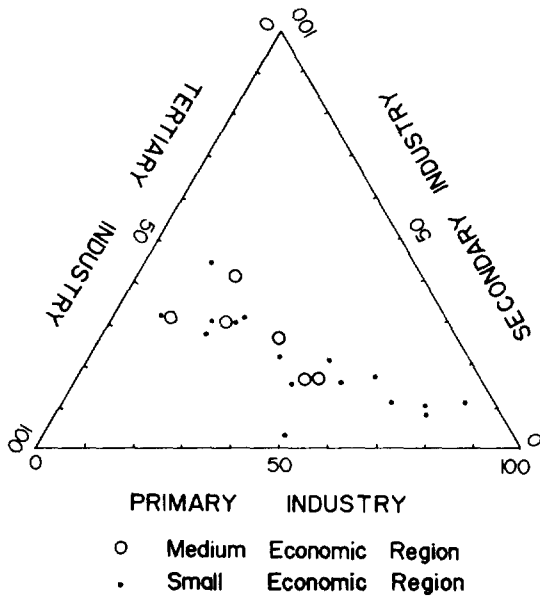


그림 3. 經濟地域의 産業構成

經濟地域으로서 低次農業經濟地域에 地하여 그 中心地의 規模가 한결 큰것이 特色이다.

大田, 光州의 2個中圈과 淸州, 全州, 光州, 濟州의 4個小圈이 여기에 屬한다.

3) 鑛業經濟地域: 鑛業이 地域의 特化 産業으로서 地域의 經濟基盤을 形成하고 있으나 이와 陶聯하여 서어비스業의 比重이 顯著하게 높은 것이 特色이다.

太白中圈과 嶺東 및 忠州小圈이 그것이다.

4) 商工業經濟地域: 2, 3次産業이 卓越한 우리나라 近代産業의 核心地域이다. 서울과 釜山의 2個中圈과 서울, 釜山, 大邱, 麗順의 4個小圈이 여기에 該當하는데 釜山中圈과 釜山小圈을 除外하면 2次産業보다 3次産業의 比重(但 生産類)이 더 높다.

5) 均衡經濟地域: 1, 2, 3次産業이 比較的의 均衡을 取하고 있는 經濟地域으로서 大邱中圈과 大田小圈이 그것이다.

## (2) 空間 및 住民生産力의 關係로 본 經濟地域의 類型

經濟密度는 空間生産力을, 住民 1人當 平均 GRP는 住民生産力을 反映하는 指標이다.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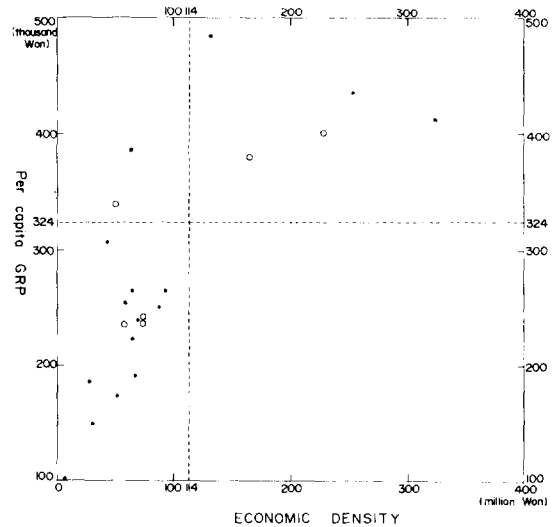


그림 4. 經濟密度와 1人當 GRP 와의 相關圖

經濟密度와 1人當 GRP 와의 關係를 相關圖로 表示하면 그림 4와 같은데 若干의 例外는 있으나 大體로 空間生産力과 住民生産力間에는 相關關係가 存在하는 傾向을 認定할 수 있으며 各指標의 平均値를 基準으로 다음과 같이 3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1) 高位空間 및 住民生産力 經濟地域: 서울, 釜山의 2個中圈과 서울, 釜山, 麗順의 3小圈의 여기에 該當된다.

2) 低位空間生産力, 高位住民生産力 經濟地域: 太白中圈과 忠州小圈이 여기에 屬한다.

3) 低位空間 및 住民生産力 經濟地域: 大田, 大邱, 光州의 3中圈과 春川, 嶺東, 濟州, 天安, 大田, 全州, 大邱, 榮安, 晉州, 光州, 木浦, 濟州의 12小圈이 그것이다.

## (3) 空間生産力과 成長率(1968~76)의 關係로 본 經濟地域의 類型

그림 5와 같이 大體로 空間生産力이 클수록 成長率도 높은 傾向이 있으며 2個類型으로 分類된다.

1) 高度成長의 高位空間生産力 經濟地域: 서울과 釜山의 2中圈과 서울, 釜山, 麗順의 3小圈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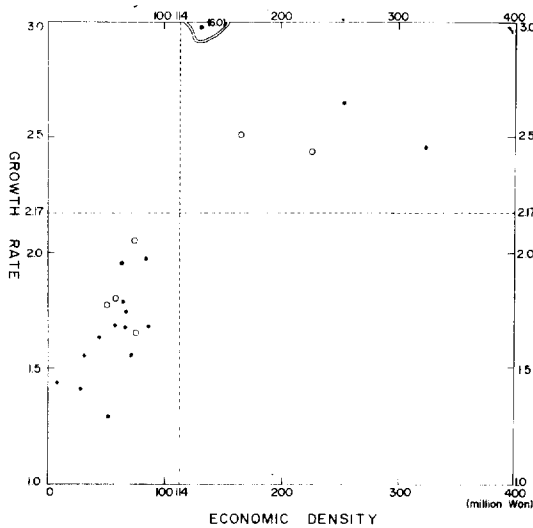


그림 5. 經濟密度와 成長率사이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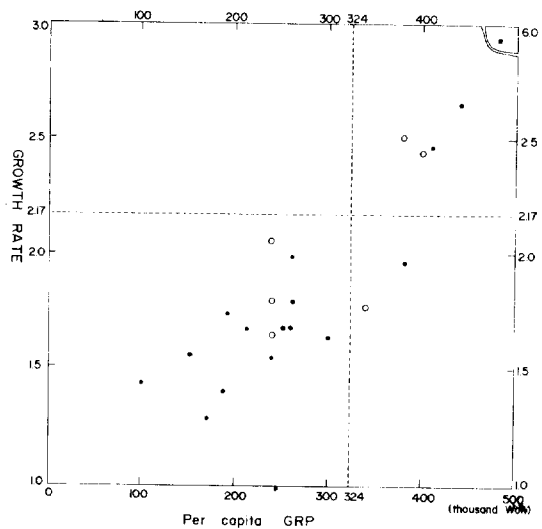


그림 6. 成長率과 1人當 GNP와의 關係

2) 低度成長의 低位空間生産力 經濟地域: 餘他經濟地域이 여기에 屬한다.

(4) 住民生産力과 成長率의 關係로 經濟地域의 類型

그림 6에서 住民生産力과 成長率間에는 相關을 認定할 수 있으며 3類型으로 分類가 可能하다.

1) 高度成長의 高位住民生産力 經濟地域: 서울과 釜山の 2中圈과 서울, 釜山, 麗順의 3小圈

2) 低度成長의 高位住民生産力 經濟地域: 太白中圈과 忠州小圈

3) 低度成長의 低位住民生産力 經濟地域: 大田, 大邱, 光州의 3中圈과 春川, 嶺東, 淸州, 大田, 天安, 全州, 大邱, 光安, 晋州, 光州, 木浦, 濟州의 12小圈

위 (2) (3) (4)의 類型을 統合하면 다음과 같이 3個類型의 經濟地域設定이 可能하다.

1) 高度成長의 高位生産力 經濟地域: 서울中圈과 釜山中圈 및 서울, 釜山, 麗順의 各小圈이 여기에 屬한다.

2) 低度成長의 複合型生産力 經濟地域: 太白中圈과 忠州小圈이 그것이다.

3) 低度成長의 低位生産力 經濟地域: 大田中圈, 大邱中圈, 光州中圈과 春川, 嶺東, 淸州, 大田

天安, 全州, 大邱, 榮安, 晋州, 光州, 木浦, 濟州의 12小圈이 여기에 該當된다.

(5) 綜合的 類型

끝으로 위의 統合類型에 다시 (1)의 結果를 加하여 各經濟地域의 性格을 綜合的으로 類型化하면 표 4와 같다.

6. 結 言

市郡의 代表産業의 空間配置는 中心地와 그 補完地域으로 組織된 機能的經濟地域單位를 잘 浮刻시키므로서 韓國의 經濟空間을 1極, 2大圈, 6中圈, 16小圈으로 構成된 4階層의 經濟地域設定을 可能케 하였으며 産業別 生産構造와 이들의 土地空間 및 地域住民에 對한 關係는 經濟地域의 性格을 밝히는데 効果的 指標가 되었다.

이러한 經濟地域의 形成要因은 中心地로서의 大都市의 分布狀況, 交通條件, 資源의 分布 등과 密接히 關聯된 것으로 짐작된다. 本研究에서의 經濟地域 設定結果가 國土開發圈域이나 그것의 基礎가 되었던 Norton 圈과는 基本的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는것은 이들이 어디까지나 計劃地

표 4. 經濟地域의 綜合的 類型

經濟地域類型	中 圈	小 圈
高度成長과 高位生産力の 商工業經濟地域	서울, 釜山	서울, 釜山, 麗順
低度成長과 低位生産力の 商工業經濟地域		大邱
低度成長과 低位生産力の 均衡經濟地域	大 邱	大田
低度成長과 複合型生産力の 鑛業經濟地域	太 白	嶺東, 忠州
低度成長과 低位生産力の 高次農業經濟地域	大田, 光州	清州, 全州, 光州, 濟州
低度成長과 低位生産力の 低次農業經濟地域		春川, 天安, 榮安, 晉州, 木浦

域이지 現實을 反映하는 經濟地域은 아니라는 事實을 證明하는 것이다.

經濟地域의 下部構造를 이루는 16小圈은 商工業經濟地域이 4, 農業經濟地域 9, 鑛業經濟地域 2, 均衡經濟地域 1個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것은 國土의 經濟空間이 4個의 高次經濟地域과 12個의 低次經濟地域으로 組織되어있음을 意味한다. 그중에서 高次經濟地域은 國土面積의 34.3%, 全國人口數의 57.7%를 占하나 그經濟力에 있어서는 地域總生産額의 71%를 차지하므로서 地域間的 顯格한 經濟力의 不均衡을 反映하고있는 것이 注目된다. 더우기 經濟構造가 高次的인 經濟地域일수록 그 生産性이나 成長性이 큰것도 事實이나 이것은 經濟理論上 當然한 結果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같이 韓國의 經濟空

間이 4階層으로 된 하나의 地域시스템을 形成하고있는 것은 確實하지만 韓國의 二大 經濟中樞에 該當하는 서울과 釜山이 經濟空間의 西北隅과 東南隅에 各各 偏在하고 國土의 中央部가 經濟的 脆弱地域으로 남아있는 不合理한 空間構造는 地域시스템의 機能을 極大化하는데 큰 決陷이 되고 있으므로 國土中央部の 經濟的機能을 補強하는 措置가 時急히 要請된다.

끝으로 本研究의 結果가 보다 큰 意義를 지니기 위해서는 (1) 보다 充實한 資料에 依한 經濟地域의 境界修定과 (2) 個個 經濟地域을 形成하는 域內 各機能地域間的 結合關係및 各經濟地域間的 交流關係, (3) 經濟地域의 變動에 關한 研究 (4) 經濟地域과 經濟計劃地域과의 比較研究 등이 뒤따라야할 必要가 있다.

〈慶北大師大教授〉



# Economic Regions of Korea

Chan - Ki Suh \*

## Summary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60' changed markedly the regional economic characteristics in Korea, and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are reorganized recently. The study of economic regions of Korea would help to understand such newly established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But no economic regions of Korea are divided or studied although the economic planning regions of Korea divided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Norton's study 1968 are known.

This study put the purpose to divide the economic regions of Korea and clarify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in division of economic region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ierachical problems in association with following 3 facts.

(1) Seoul, the capital of Korea and largest city in Korea, is functioning as the economic pole in the regional hierarchy and has the nation - wide hinterland.

(2) As second order central places, Se-

oul and Busan are dividing Korean economic space into two parts for their hinterlands; Seoul economic zone and Busan economic zone.

(3) Under these regional frame each economic zone is subdivided into medium and small economic regions based on the major industries of city and Gun, their spatial arrangement around cities as central places, traffic areas of the central places, and other data.

As a result 4 hierarchic regional structures; 1 economic pole, 2 economic zone, 6 medium, and 16 small economic regions are recognizable in Korean economic space. And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conomic regions of this study and Norton's economic regions or the government's planning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16 economic regions are grouped into 4 higher level economic regions specialized to manufacturing and services and 12 lower level economic regions specialized to primary occupation. As a general the hig-

---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2, pp. 23~40, 1980.

\* Kyungpook Nat. Univ.

her level of economic region the greater economic productivity and growth rate.

It is notable characteristics that the location of Seoul and Busan as the two largest economic centers in Korea deviates to northwest and southeast corners res-

pectively and the central part of the country remains as the vacant or meager area in economic productivity.

It seem very irrational regional organization to maximize the functions of regional economic system.